

“청담스님 구세사상 조계종발전의 원동력”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세미나’서

청담스님의 선사상에 바탕한 인류 구세 사상이 조계종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연구가 나왔다.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을 맞아 조계종 총무원과 청담기념사업회가 10~12일 서울 프레스센터와 수원 봉림사에서 개최한 ‘청담 대종사와 현대 한국불교의 전개’ 주제의 학술 세미나에서 월주스님(전 조계종 총무원장)은 ‘청담의 구세관과 한국불교 비구승단 재건’이라는 주제를 통해 “종단 3대 사업 설정하고, 한글 ‘불교사전’ 간행, 동국대에 역경원을 설치, 해방이후 서울권 최초의 교육기관 신달학원 설립 및 스님들의 동국대 중비생 교육제도 실시 등의 ‘정화가 곧 구세’라는 구세사상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담스님의 구세사상과 원행요지’에 대해 발표한 혜정스님(문수사 주지)은 “스님은 불교의 진리가 지식을 구하는 자에게 세계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있었음을 설하고 있다”며 “스님에게 있어 구세란 인간이 저마다 스스로 주인이 되어 그 주인된 진리로써 자기 자신을 관리 경영하고, 나아가 세계를

구제하는데 있었다”고 밝혔다.

스님의 이러한 구세사상은 선사상에 바탕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청담스님의 선사상 연구’를 발표한 선본스님(동대 선학과 교수)은 “선은 창조적인 생활이며, 항상 지금 여기서 자기 자신의 주체적인 절대 깨달음의 생활이라고 제시했다”며 “결국 선의 깨달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와 중생구제 위한 위대한 보살행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기종 교수(동국대)도 ‘청담의 마음은 연

스님禪機 한국불교 주체성 확립 원력

禪書에선 ‘참 나’ 희구 창조력 가득

구’를 통해 “스님은 인간의 주체는 마음이며, 생명 그 자체라고 보았다”며 “마음 그 자체가 공원불멸의 실체인 우주발전의 원동력이며 핵이라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산스님(동국대 교수)은 “참선은 반드시 참회를 필요로 하며 뒤우침 없는 자성의

회복이나 참나의 발견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며 “굴릴 수 없는 자비무적의 포용력을 갖춘 스님의 선기禪機는 한국불교의 주체성을 세우는 대보살의 원력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번 세미나에서는 그간 일반에



◀청담스님 탄신 100주년 기념세미나가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오형근 동대영예교수, 동대 교수 선본스님, 문수사 주지 혜정스님, 서울불교대학원 대학교 목정배 총장.

알려지지 않는 스님의 시 세계, 선 서화 등의 논문도 발표돼 불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청담스님의 선사’를 주제로 발표한 조수현 교수(원광대와 오후구 교수(부경대)는 “스님의 선사에는 선의 깊이, 무념의 세계, 참나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몸부림치는 창조 마음들이 느껴진다”며 “스님의 선서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곳에 따라서’의 경애를 표현했고, 이것이 때로는 혁명기도 따를 수 없는 대중과 함께하는 전위성과 현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nia.com

禪茶교육 청소년지도 큰 효과

이동배 교법사 발표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전통적인 가치관의 붕괴로 학교교육에서 인성교육과 예절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선과 접목된 다도교육(禪茶教育)이 청소년들에게 집중력과 감성발달에 도움을 주며 지(知 正情) 의(義)가 조화된 전인교육의 소재가 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 이동배 교법사는 10월 25일 열리는 제 32회 교학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할 ‘선다지도의 내면화를 통한 불교교육 방안’이라는 논문을 통해 “선다교육을 실시해본 결과, 학생들 스스로가 자기생활태도평

선다교육 활성화를 위해 이 교법사는 “행다법을 통해 가정과 학교에서 음다(飲茶)시간을 설정, 스트레스를 다스리며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장의 의지와 교법사의 깊은 관심과 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밖에도 이 교법사는 “선다교육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불교사상을 설립이념으로 하는 전국 종합학교에서 특성화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며 “선을 바탕으로 다도교육이 이뤄진다면 자주적인 인간의 기질이 마련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자연 그대로의 참모습을 찾게 되는 교육 효과를 거둘 수 있

집중력·감성발달... 전인교육 가능성

몸가짐 가지런해지고 교칙위반 격감

가에서 자신의 몸가짐이 가지런해졌다고 평가할 정도로 행동의 변화를 보였고, 교칙위반 학생이 현저히 줄었다”며 “불교의 이상적 인간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간을 육성하는데 효과적일 심성교육과 예절교육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법사는 또 “선다교육은 서구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전통문화를 이해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행다법 실행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며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길러진다”며 “특히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및 학부모들에게도 관심을 불러일으켜 학교 제 주체들 간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정서적 안정감과 친교생활 문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고 말해 청소년 다도교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교학연구발표회는 매년 10월경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이 공동으로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다. 또 이번 교학연구발표회에서는 정광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특별 활동 시간을 이용해 만든 불교 소재의 그림, 시, 공예작품 등을 관람하는 시간도 준비되며, 발표된 교법사들의 논문은 불교연합회가 논문집으로 발간해 각 종립 중·고등학교에 무료 배포된다. 올해 발표되는 정광중·고등학교에서 열린다.

한편 불교교육연합회와 전국교법사단은 10월 24일 광주 선추림관광호텔에서 각각 임시총회를 개최, 회의를 개정하고 임원을 선출할 방침이다.

김두식 기자 doob@buddhania.com

외국인스님 교육체계 확립

21~30일 첫 교과안거... 집전의식·좌선 실수

외국인 스님을 위한 교과안거가 처음 실시되고, <초발심자경문> <행해경집> 등 전통교재 영역본이 올 12월에 발간되는 등 외국인 스님에 대한 중단 교육체계가 확립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무배은 서울 수유리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교과안거(산철교육)를 열고, 집전의식 교육 및 한국불교문화 특강, 좌선 실수 등을 실시한다.

이번 교과안거는 올 1월 교육원이 외국인 승려 교육관계자 간담회에서 밝힌 외국인 승려 교육사업에 따라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 문화 이해 부족, 한문 교재 중심의 강연 커리큘럼 등으로 어려움을 느꼈던 외국인 스님에게 한국불교를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교육원은 외국인 승려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관련, 현행 종법 상에 관련 조항이 없는 점을 감안해 ‘가칭’외국인 승려 교육지원법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 다음 달에 구성될 차기 중앙총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인 스님은 강원 및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등의

초발심 자경문 등 올 안에 영역 마무리

중단기본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비구(비구)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교과안거는 21일 일제식을 시작으로 기본 습의, 예불실수, 법구 사용법, 사시 불공법, 염불수행법, 발우공양법, 각단 예불법 등의 집전의식 실천교육과 ‘외국인 수행자가 나아가 할 길’ (원명 연등국제선원장), ‘대승불교와 한국 선’ (조성택 고려

대 교수), ‘한국불교문화의 이해’ 및 ‘간화선의 이해’ (삼재용 서울대 교수) 등의 특강이 이어진다. 또 29일에는 신촌 봉림사를 방문, 타고종 집전의식도 배운다. 모든 강의는 영어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지난 3월부터 동국대학교 언어연구원에 위탁해 시행해오고 있는

외국인 스님의 한국어 학습에도 강화해 많은 외국인 스님들이 교육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현재 70% 정도 영역작업이 진행된 <초발심자경문>, <행해경집> 등의 전통교재 번역을 올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앞으로 <치문>, <도서>, <종요>, <선요> 등의 강원 교재도 영역해 외국인 스님에게 배포한다. 현재 조계종에 등록된 외국인 스님은 총

62명으로, 이 중 비구계를 구족한 25명을 제외한 37명(사미 25명, 사미니 12명)의 외국인 스님이 현실적인 여건상 구족계 수지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95년 이후 외국인 스님들은 현행 종법상 강원, 동국대학교, 중앙승가대학 등 중단기본교육기관을 나와야만 구족계를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교육원의 이번 교과안거 실시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nia.com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문화행사 참가

1. 불자님은 올 가을(10~11월) 연극, 뮤지컬 등 문화 공연에 몇 번 참석할 계획입니까?
①1번 ②2번 ③3번 ④4번 이상 ⑤계획이 없다
2. 문화 공연을 선택할 때의 가장 큰 기준은 무엇입니까?
①작품성 ②대중적 인기도 ③종교 ④편람료

설문 참여: 10월 17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무첨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92호 A판 8면에 실립니다.

케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도 개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진(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량의 기념품은 증정합니다. 02)722-4162, buddhanews.com

인생을 바꾸는 이불교신문

아바타코스

꿈을 ★ 이루십시오!
정신력을 키우고 가만 내다보면 귀의 꿈도 현실이 됩니다.
진정한 부유함 / 건강 / 성취 그것은 이미 꿈이 아닙니다.
쉽지만 강력한 프로그램 아바타 체험해보십시오.
귀하의 소중한 꿈을 이루십시오!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불 조국통일염원 아미타불 패불점안 법회 행

우주법계와 삼라만상은 일체진여를 깨닫코져 대승종에 인연하여
나라의 염원인 남북화해와 조국통일을 위해 아미타불 패불을 봉안하노라.

일천만 불자들이여~

무릇 때를 아는 자는 보살의 동체대비를 이루리라 하였노니

패불점안 복전에 무루동참하시어 그 인연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시고 세세생생토록 평안하시라.

■ 일 시 : 2002. 10. 25. 금요일 오전 11시

■ 장 소 : 서울 강북구민회관 대공연장

■ 주 최 : 사단법인 대한불교 대승종

■ 주 관 :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 후 원 : 대승종 전국 지방종무원, 대승종 포교사단 방법기동순찰대, 대승종 전국 신도회

■ 협 찬 : 현대불교신문사

대한불교 대승종 총무원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 1동 186-19 TEL : 031)448-8811